

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

- 김사무엘 선교사 / 2002. 7. 12 -

아프리카의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선교 하셨던 이 재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'요나 선교' 학교를 다녀왔습니다. 선교의 이론과 실재가 명쾌하게 조화를 이룬 아주 은혜로운 세미나였습니다. 이 집회를 통해 느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.

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쓰신 그분의 일이요, 그분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기록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으나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, 너무 방대하거나, 아니면 우리의 영적 무지로 인하여 알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곧 "선교"라는 것이었습니다.

흑암이 온 누리를 덮고 있는 칠 흙 같은 어둠과 무질서 속에 "빛이 있으라" 하신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"어둠"을 밝히는데 있었습니다. 이 '어둠'의 주관자이신 사탄이 그 모습을 들어 내는 "인간 타락"의 현장에서 "여인의 후손"을 통하여 이 "흑암의 주관자"를 패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"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"을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2의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.

그것이 곧 우리의 "거듭남"이요 구원인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"新人類"로 재창조하시고,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 질 때 "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" (마24:14)고 주님은 인류의 종말의 때가 언제 올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.

모든 인류들에게 전파되어진 그날에 세상 끝이 오고, 곧 그날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의 첫날이 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.

하나님의 권세가 시작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. 그 나라가 얼마나 공평하며 의로우며 자유하며 평안이 넘치겠는지요. 요즈음 세계 축구로 유명해진 한국팀 감독을 보고 '대통령'도 외국에서 수입하자는 농담 섞인 광고를 보았습니다. 믿을 수 없는 정부, 타락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진정한 지도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"하나님"께서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. 상상할 수 없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. 바로 이와 같은 날이 곧 이르겠으니 그날이 "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"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.

이 천국은, 이 지상의 끝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하나도 없을 때 드디어 그날이 오게 됩니다.

성경이 쓰여진 목적도,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도,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경험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도, 이 복음을 이웃과 땅 끝까지 전하라는 데에 있습니다.

가지 못하면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.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8천여 종족 중에 어느 한 민족이라도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.

◎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! - 「온누리칼럼」 제공